

이달의 초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의 현황과 과제

노후준비지원제도의 필요성과 현황

| 이소정 |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사례와 과제

| 성혜영 |

노후준비의 현황과 과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황남희 |

노후준비수준에 따른 집단 유형화와 함의

| 이해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노후준비 수준에 따른 집단 유형화와 함의¹⁾

A Cluster-Based Typology of Retirement Preparedness Profiles and Its Implications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후준비는 개인적인 과제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노후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후준비 수준의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응답자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런 다음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4대 영역의 주요 항목,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 평가에 대한 응답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집단의 강점은 유지하면서 취약한 영역은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²⁾하였다. 노후준비는 개인적인 과제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기대수명

의 지속적 증가, 가족부양 기능의 악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노후의 불확실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노후준비를 시작

1) 이 글은 황남희, 이선희, 박은자, 이혜정, 최경덕, 이소정, 성혜영, 김난주, 김재호, 김은지, 오신희. (2025).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수록된 제3장 노후준비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언론보도.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crapDetail.do?articleId=388&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pageIndex=1>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정부는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 스스로 노후에 이르기 전 노후 준비³⁾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부터 공공 차원의 노후 준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황남희 외, 2024, p. 23). 즉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⁴⁾

아울러 이 법 및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를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 점검,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다(황남희 외, 2024).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후준비 수준의 주요 영역별 평균 점수나 총점, 전체 수준의 변화 추이 등 전반적인 노후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노후준비는 은퇴 이후 소득이나 자산을 확보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노후준비에는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노후준비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재무 상태는 양호하나 건강이나 여가가 취약한 사람

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재무는 취약하나 다른 영역은 충실하게 준비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어느 영역에서 강점과 약점을 가지는지, 유사한 노후준비 특성을 가지는 집단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에 대한 단일 점수나 평균 수준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여러 영역을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집단별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대해 살펴본 다음 노후준비 수준의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준비 수준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응답자들을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에 따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유형화함으로써 노후준비의 이질성과 복합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분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도출된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4대 영역의 주요 항목,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 평가에 대한 응답을 비교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노후준비 실태조사 기초 분석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의 조사 기간은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조사 규모는 30~

3)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 1항.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29831>

4)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 2항.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29831>

[표 1] 주요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재무	현재 소득, 구직 활동, 자산 현황, 본인(배우자) 은퇴 예상 연령, 은퇴 후 예상 생활비, 본인(배우자) 국민연금(직역연금) 수급 여부·수급액 등
건강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스트레스, BMI 등), 건강한 생활습관(신체활동, 수면, 건강 검진, 식습관, 흡연, 음주 등)
여가	현재 및 미래 취미·여가활동(의향) 개수, 취미활동 지속 기간 및 동반자, 본인의 여가활동 평가, 노후 여가생활 고려 여부 등
대인관계	가족·가족 외 타인·단체활동 관계에서의 친밀성, 실천, 만족도 파악 등
노후준비 및 노후준비서비스 인식	주관적 노후준비 수준 및 중요성, 노후준비서비스 인지도와 참여(희망) 등
일반 사항	응답자 개인정보(이름,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등), 응답자 가구 현황(가구원 수, 자녀 유무, 자녀 관련 정보, 부모 동거 등), 응답자 취업 유무 및 직종, 종사상지위 등

출처: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황남희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4, <표 3-1>.

69세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3,040명이었다(황남희 외, 2025).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대인면접조사였다. 조사 내용은 4대 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노후준비 수준, 노후준비 및 노후준비서비스 인식과 정책 인지도, 일반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50대 응답자

가 26.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0대(25.4%)와 40대(25.1%)로 유사하고, 30대가 22.7%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응답자가 50.5%로 여자(49.5%)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7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다인가구의 비율이 84.9%로 높았다. 지역의 경우 대도시(39.8%)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소도시(37.2%), 농어촌(23.1%) 순이

[표 2]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전체		3,040	100.0
연령	30대	690	22.7
	40대	764	25.1
	50대	815	26.8
	60대	771	25.4
성별	남자	1,534	50.5
	여자	1,506	49.5

[표 2]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계
혼인상태	유배우자	2,409	79.2
	무배우자	631	20.8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460	15.1
	다인가구	2,580	84.9
지역	대도시	1,209	39.8
	중소도시	1,130	37.2
	농어촌	701	23.1
학력	중졸 이하	117	3.9
	고졸	1,153	37.9
	전문대졸	438	14.4
	대졸 이상	1,332	43.8
취업 여부	취업	2,487	81.8
	미취업	553	18.2
직업	관리·전문·사무	943	37.9
	판매·서비스	956	38.4
	기능·노무	446	17.9
	농림어업	142	5.7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1,515	60.9
	임시·일용근로자	274	11.0
	고용주·단독자영업자	666	26.8
	무급가족종사자	7	0.3
	기타	25	1.0
가구 경제수준	상	412	13.5
	중	1,378	45.3
	하	1,251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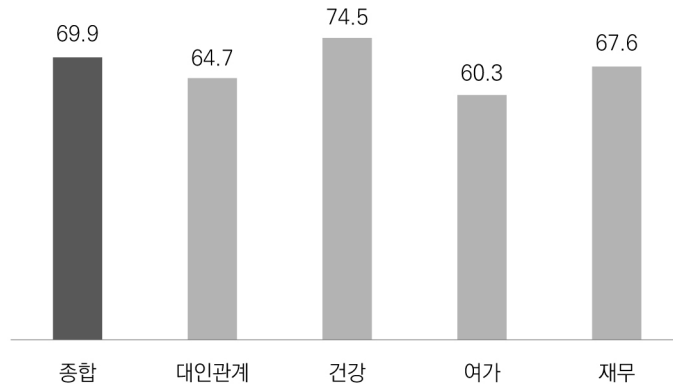
출처: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 황남희 외, 202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9, <표 3-5>.

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43.8%)과 고졸 (37.9%)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전문대졸이 14.4%였으며, 중졸 이하는 3.9%로 가장 낮았다. 취업자인 경우가 81.8%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에서 판매·서비스직(38.4%)과 관리·전문·사무직(37.9%) 비율이 높은 편이며, 다음으로 기능·

노무직(17.9%)과 농림어업(5.7%) 순이었다. 종사상지위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6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용주·단독자영업자가 26.8%, 임시·일용근로자가 11.0%였다. 가구 경제수준이 중 (45.3%)과 하(41.1%)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상인 경우는 13.5%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1] 2024년 조사 기준 4대 영역 분포

(단위: 점)



출처: 저자 작성

노후준비 실태조사에서 중요한 문항인 4대 영역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노후준비 수준 점수⁵⁾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4대 영역의 종합 노후준비 수준 점수는 69.9점이었(그림 1). 4대 영역별로 보면 건강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무 67.6점, 대인관계 64.7점, 여가 60.3점

[표 3] 2019년과 2024년 노후준비 수준 점수 변화

(단위: 점)

구분	2024년	2019년	증감
종합	69.8	67.5	2.3
대인관계	64.7	67.3	-2.6
건강	74.3	74.1	0.2
여가	60.1	59.6	0.5
재무	67.8	60.3	7.5

출처: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황남희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8, <표 3-4>.

5) 노후준비 수준 점수는 노후준비 실태조사에서 대인관계·건강·여가·재무의 4개 영역, 37개 진단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통해 측정된 것을 기반으로 하였다. 노후준비 진단지표의 산식 개발 과정은 ① 지표별 점수 계산(선택 문항별 점수 부여), ② 영역별 가중치 적용, ③ 종합 가중치 적용의 단계적 과정을 통해 영역별 및 종합 노후준비 수준(점수)을 100점 만점으로 지수화하였다. 종합 점수의 산식은 대인관계×0.117+건강×0.468+여가활동×0.08+재무×0.335이다. 4개 영역(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은 황남희 외 (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pp. 85-105).

이었다.

추가로, 2024년 노후준비 수준 점수를 2019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⁶⁾ 4대 영역의 종합 노후준비 수준 점수는 2024년 69.8점으로 2019년(67.5점)에 비해 2.3점 증가하였다. 영역별로는 최근 5년 동안 재무가 7.5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인관계는 2.6점 감소하였다. 건강과 여가 점수는 소폭 증가 혹은 정체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영역의 순위를 보면 건강이 74.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무(67.8점), 대인관계(64.7점), 여가(60.1점) 순이었다.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재무와 대인관계의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건강: 74.1점, 대인관계: 67.3점, 재무: 60.3점, 여가: 59.6점).

3 노후준비 수준에 대한 집단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가. 노후준비 수준에 대한 집단 유형화 결과

노후준비 수준에 대한 집단 유형화를 군집분석⁷⁾을 통해 실시한 결과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집단별 이름은 ‘노후준비 최우수형’,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노

후준비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29.7%),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23.2%),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8.1%) 순이었다(표 4).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의 경우 종합 점수는 78.1점이고, 4대 영역(대인관계 72.5점, 건강 78.8점, 여가 72.3점, 재무 80.5점)이 전반적으로 모두 높았다(표 5, 그림 2). 전체 대상과 비교하면 종합점수(69.9점)는 8.2점 높았다. 4대 영역도 모두 큰 값을 가졌다(대인관계 7.8점, 건강 4.3점, 여가 12.0점, 재무 12.9점 높음).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의 경우 종합 점수는 69.3점이고, 4대 영역 중에서 재무가 7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70.2점, 대인관계 60.2점, 여가 50.2점 순이었다. 전체 대상과 비교하면 종합 점수(69.9점)의 경우는 0.6점 적는데, 재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작은 값을 가졌다(재무는 8.2점 높음).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의 경우 종합 점수는 63.1점이었다. 4대 영역 중에서 건강 76.1점, 대인관계 63.1점, 여가 60.9점으로 높았으나, 재무는 4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대상과

6) 2019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응답자(35세 이상)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2024년도 3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은 전국 성인남녀 35~69세 1,500명이고, 2024년은 전국 성인남녀 35~69세 2,723명이다.

7) 노후준비 수준에 대한 집단 유형화를 위해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점수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하였다. 각 영역의 점수는 표준화하였고, 군집 간 결합 방법은 Ward의 최소 분산법(Ward's Minimum Variance)을 적용하였다. 적정 집단(군집) 수는 멘드로그램에서 나타난 군집별 병합 형태 및 사례 수, 결과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집단 수가 4개일 때 집단 간 특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판단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표 4] 4개 집단 분포

(단위: 명, %)

집단	사례수	비율
노후준비 최우수형	1,177	38.9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903	29.7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712	23.2
노후준비 취약형	248	8.1
전체	3,040	100.0

주: 사례 수는 가중치 미적용이고, 비율은 가중치 적용함.

출처: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황남희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7, <표 3-11>.

비교하면 종합 점수인 69.9점보다 6.8점 작고, 재무는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재무는 22점 낮음).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의 경우 종합 점수는 52.0점이고, 4대 영역 모두 낮았다(건강 64.7점, 대인관계 50.6점, 여가 37.3점, 재무 38.3점). 전체 대상

과 비교하면 종합 점수인 69.9점보다 17.9점 낮았다. 다른 집단에 비해 차이가 가장 컸다. 4대 영역 모두 큰 차이를 보였다(재무 -29.3점, 여가 -23점, 대인관계 -14.1점, 건강 -9.8점).

[표 5] 4개 집단의 4대 영역과 종합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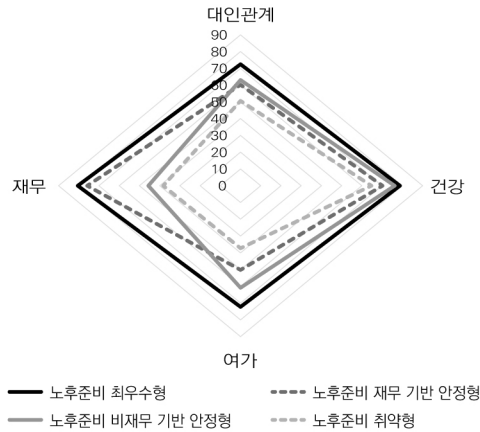
집단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종합
전체	64.7	74.5	60.3	67.6	69.9
노후준비 최우수형	72.5 (7.8)	78.8 (4.3)	72.3 (12.0)	80.5 (12.9)	78.1 (8.2)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60.2 (-4.5)	70.2 (-4.3)	50.2 (-10.1)	75.8 (8.2)	69.3 (-0.6)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63.1 (-1.6)	76.1 (1.6)	60.9 (0.6)	45.6 (-22.0)	63.1 (-6.8)
노후준비 취약형	50.6 (-14.1)	64.7 (-9.8)	37.3 (-23.0)	38.3 (-29.3)	52.0 (-17.9)

주: ()는 전체와의 차이를 의미함.

출처: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황남희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8, <표 3-12>.

[그림 2] 4개 집단의 4대 영역에 대한 분포

(단위: 점)



출처: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황남희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8, [그림 3-2].

나. 집단 유형별 특성 비교

집단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4대 영역의 주요 항목,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⁸⁾

먼저 4개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표 6>과 같다. 성별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남자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

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남자가 42.0%로 낮았다.

연령대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의 평균 연령은 49.1세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젊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의 평균 연령은 54.6세로 가장 높았다. 다른 집단에 비해 60대가 4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50.6세)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50.9세)은 유사한 편이었다.

1인 가구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이 3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후준비 비재무

8) 군집분석 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는 군집을 직접 형성한 기준이 아니라 군집 분석 결과에 따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4개 영역은 생애주기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영역별 점수를 통해 군집 형성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내용은 4개 집단 유형별 기술통계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을 하여야 한다.

기반 안정형 집단이 20.3%였다.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과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다인 가구의 비율이 각각 90.0%, 88.0%로 높았다. 배우자 유무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나머지 집단에 비해 유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48.2%)과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39.1%)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최종 학력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은 대졸 이상이 53.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이 47.5%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50.0%)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50.7%)은 고졸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중졸 이하가 18.6%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가구 경제수준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모두 중간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가구 경제수준이 낮은 비율이 70.6%로 나타나 나머지 집단에 비해 꽤 높은 편이었다.

취업 여부 분포를 보면 4개 집단 모두 취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이 8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후준비 최우수

형 집단이 83.6%,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이 77.3%,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이 72.3% 순이었다. 직업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은 관리·전문·사무의 비율이 50.7%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판매·서비스(38.9%)와 관리·전문·사무(37.2%)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기능·노무(32.6%)와 농림어업(16.5%)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과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각각 68.9%, 65.8%로 가장 높았다.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상용근로자(49.8%)와 고용주·단독자영업자(31.5%)가 많은 편이었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고용주·단독자영업자(35.2%)와 임시·일용근로자(33.7%)가 많은 편에 속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대졸 이상, 유배우자, 취업자 및 대도시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1인 가구와 가구 경제수준 하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남자, 대졸 이상, 유배우자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취업자 비중이 높았다.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여자, 고졸의 비중이 높았다.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과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에 비해 1인 가구와 농어촌 거주자 비중이 높았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았다. 1인 가구, 무배우자, 농어촌 거주자 및 가구 경제수준 하의 비율이 가장 높

[표 6] 4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세)

구분		노후준비 최우수형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노후준비 취약형
성별	남자	52.3	53.7	42.0	53.6
	여자	47.7	46.3	58.0	46.4
연령대	30대	25.4	20.3	24.7	13.1
	40대	27.3	27.6	19.8	20.6
	50대	28	26.9	26.4	22.0
	60대	19.3	25.2	29.1	44.3
	(평균)	49.1	50.6	50.9	54.6
가구	1인 가구	10.0	12.0	20.3	36.4
	다인가구	90.0	88.0	79.7	63.6
혼인 상태	유배우자	84.8	83.5	72.0	57.9
	무배우자	15.2	16.5	28.0	42.1
거주 지역	대도시	48.2	39.1	31.2	26.3
	중소도시	34.8	38.8	38.2	39.5
	농어촌	17.0	22.1	30.5	34.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3	2.9	4.2	18.6
	고졸	28.8	36.6	50.7	50.0
	전문대졸	16.7	13.1	13.1	12.3
	대졸 이상	53.2	47.5	32.1	19.1
가구 경제 상태	상	19.2	11.6	10.0	3.8
	중	46.6	47.2	47.7	25.6
	하	34.3	41.2	42.3	70.6
취업 여부	취업	83.6	88.1	72.3	77.3
	미취업	16.4	11.9	27.7	22.7
직업	관리·전문·사무	50.7	37.2	24.3	10.8
	판매·서비스	33.6	38.9	46.3	40.1
	기능·노무	12.4	19.9	20.1	32.6
	농림어업	3.2	4.0	9.2	16.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8.9	65.8	49.8	29.0
	임시·일용근로자	6.3	8.1	16.2	33.7
	고용주·단독자영업자	24.0	25.2	31.5	35.2
	무급가족종사자	0.0	0.1	1.0	0.5
	기타	0.8	0.8	1.6	1.6

출처: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황남희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0, 〈표 3-13〉.

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가구형태, 거주 지역,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상태 등이 집단 간 노후준비 격차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4대 영역 주요 항목에 대한 집단별 특성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와 관련된 주요 항목에 대해 4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7). 대인관계에 대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89.0%),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75.1%),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63.6%)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35.8%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은 80.9%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62.9%),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52.3%) 순이었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18.6%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큰 편에 속하였다.

노후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에서 각각 37.8%와 31.4%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16.2%,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12.4%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대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각각 11.7%와 8.7%가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38.6%,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29.0%로 응답하여 높은 편이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각각 62.1%와 58.3%가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었던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42.8%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2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을 느낀 경험에 대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각각 3.8%와 4.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이 7.1%로 높았고,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이 15.1%로 가장 높았다.

취미·여가 활동 참여 영역의 평균 개수⁹⁾를 살펴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각각 5.5개와 4.3개로 많았다.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3.7개,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2.6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활동을 중단할 은퇴 예상 연령으로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67.7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9)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활동 참여, 스포츠 관람,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 관광 및 야외 놀이, 취미오락, 교양 학습, 자원봉사 활동, 종교활동, 사교모임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의 결과값이다.

나머지 집단은 유사한 편에 속하였다(노후준비 비 집단 66.6세,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 66.7세, 노후준비 최우수형 66.0세).

[표 기] 4대 영역의 주요 문항에 대한 집단별 특성

(단위: %, 개, 세, 만 원)

구분			노후준비 최우수형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노후준비 취약형
대인 관계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0.0	0.0	0.0	2.4
		별로 만족하지 않음	0.2	2.3	1.2	13.4
		보통	10.9	34.0	23.7	48.4
		대체로 만족	70.6	61.2	70.3	35.8
		매우 만족	18.4	2.4	4.8	0.0
건강	건강상태	대단히 나쁨	0.0	0.0	0.0	0.9
		조금 나쁜 편	0.7	6.2	1.7	15.8
		보통	18.4	41.6	35.4	64.7
		대체로 건강한 편	64.5	49.0	56.4	17.3
		매우 건강	16.4	3.3	6.5	1.3
	노후 건강관리	전혀 생각 못함	2.0	1.3	2.5	5.6
		거의 생각 못함	18.5	30.5	19.6	36.3
		어느 정도 생각해 봄	41.8	52.0	46.6	45.8
		비교적 구체적으로 생각	34.2	14.9	30.3	11.1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	3.6	1.3	1.1	1.3
	스트레스 정도	대단히 많이 느낌	0.3	0.9	0.6	2.9
		많이 느끼는 편	11.4	28.1	8.1	35.7
		조금 느끼는 편	73.4	67.3	81.3	60.6
		거의 느끼지 않음	14.8	3.6	10.0	0.8
	스트레스 관리 유무	예	62.1	42.8	58.3	26.7
		아니요	37.9	57.2	41.7	73.3
	우울감	예	3.8	7.1	4.3	15.1
		아니요	96.2	92.9	95.7	84.9
여가	취미여가활동 수	평균	5.5	3.7	4.3	2.6
		표준편차	1.8	1.4	1.8	1.5
재무	은퇴예상 연령	평균	66.6	66.0	66.7	67.7
		표준편차	5.7	5.8	5.8	4.9
	노후예상생활비	평균	326.2	302.3	275.2	239.6
		표준편차	106.4	93.9	97.9	110.5

주: 노후예상생활비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구분 없이 계산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출처: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황남희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3, <표 3-14>.

은퇴 이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생활비 평균을 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이 326만 2천 원으로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다.¹⁰⁾ 다음으로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302만 3천 원,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275만 2천 원이었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239만 6천 원으로 최저였다.

종합적으로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영역의 주요 문항을 살펴본 결과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 순으로 전반적인 결과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후준비 수준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여건 및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집단별 특성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인지도, 수혜 경험, 수혜한 적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 4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8). 4개 집단

[표 8] 4개 집단의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특성

(단위: %)

구분		노후준비 최우수형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노후준비 취약형
인지도	예, 들어 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4.8	1.7	2.5	0.8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48.5	39.1	48.6	29.2
	아니요	46.7	59.2	48.9	70.0
수혜 경험	있음	10.6	26.7	10.1	0.0
	없음	89.4	73.3	89.9	100.0
(수혜 경험 있는 경우)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0.0	24.5	0.0	-
	보통이다	33.7	0.0	51.5	-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0.5	75.5	48.5	-
	매우 도움이 되었다	15.8	0.0	0.0	-
이용 의향	있음	36.7	28.4	26.8	22.3
	없음	63.3	71.6	73.2	77.7

출처: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황남희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6, 〈표 3-15〉.

10)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노후생활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구분 없이 계산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별 노후준비서비스의 인식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의 경우 노후준비서비스를 들어 본 적이 있고, 잘 알고 있는 비율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집단에서 잘 모르거나 들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노후준비 취약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서비스 수혜 경험 여부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의 경우 수혜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이 각각 10.6%와 10.1%였으나,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서비스 수혜 경험에 있는 경우 도움 정도에 대한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과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인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단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수혜 경험에 있는 응답자는 12명으로 적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의향 분포를 보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은 36.7%가 이용 의향이 있으며, 나머지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이 각각 28.4%와 26.8%였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이 22.3%로 가장 낮았다.

4) 노후준비 평가 관련 집단별 특성

마지막으로 노후준비 평가와 관련해 보면 10점 만점 기준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 점수는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의 경우 평균 5.6점이었는데, 6~10점에 절반 이상(52.1%)이 응답하였다(표 9).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각각 5.3점, 5.2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이 평균 3.9점으로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대부분 0~4점(60.8%)에 분포되어 있다.

[표 9] 4개 집단의 노후준비 평가에 대한 분포

(단위: %, 점)

집단	0~4점	5점	6~10점	평균
노후준비 최우수형	26.5	21.4	52.1	5.6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30.7	23.1	46.1	5.3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34.2	22.5	43.3	5.2
노후준비 취약형	60.8	20.6	18.5	3.9

주: 0~10점으로 점수가 커질수록 본인의 노후준비가 잘된 것임.

출처: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황남희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7. <표 3-16>.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24년 노후준비 수준의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4개 집단(‘노후준비 최우수형’,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노후준비 취약형’)으로 유형화하였다(표 10).

4개 집단별 문항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집단별 강점은 유지하고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발굴하여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군집분석에 의한 노후준비 수준 집단 유형화에서 노후준비가 가장 취약한 집단의 경우 이미 노후에 진입하거나 노후준비가 어려운 고령층의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대상은 노후준비 지원과 노인복지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의 선제적 발굴, 지역사회 밀착형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다영역 통합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고, 학력은 고졸, 거주 지역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가구 경제수준은 하인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와 관련된 주요 변수 결과도 다른 3개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힌 노후준비 수준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재의 노후준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이고, 학력은 대졸 이상, 거주 지역은 대도시, 가구 경제수준은 상인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과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각각 상호 보완 가능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집단별 취약한 영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재무 영역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다른 3개 영역(대인관계, 건강, 여가)의 노후준비 수준을 균형 있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여 촉진,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등 비재무 영역을 보완하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 영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후 소득 설계, 연금제도 활용, 금융 교육 등 재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두 집단은 평균 연령과 가구 경제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남자이고, 학력은 대졸 이상, 거주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노후준비 비재

[표 10] 4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약

구분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	취약형 집단
성별		남자(52.3%)	남자(53.7%)	여자(58.0%)	남자(53.6%)
평균 연령		49.1세	50.6세	50.9세	54.6세
최종 학력		대졸 이상(53.2%)	대졸 이상(47.5%)	고졸(50.7%)	고졸(50.0%)
1인 가구 비율		10.0%	12.0%	20.3%	36.4%
유배우자 비율		84.8%	83.5%	72.0%	57.9%
취업자 비율		83.6%	88.1%	72.3%	77.3%
거주 지역 비율	대도시	48.2%	39.1%	31.2%	26.3%
	중소도시	34.8%	38.8%	38.2%	39.5%
	농어촌	17.0%	22.1%	30.5%	34.2%
가구 경제수준 비율	상	19.2%	11.6%	10.0%	3.8%
	하	34.3%	41.2%	42.3%	70.6%

출처: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황남희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0. <표 3-18>.

무 기반 안정형 집단’은 여자이고, 학력은 고졸, 거주 지역은 중소도시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생애주기별 전략적인 노후준비 지원 접근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즉 생애주기별(청년, 중년, 장년, 예비 노년 대상) 노후준비 지원을 차별화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세대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노후준비 실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은퇴가 가까워질 때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서비스의 인지도 제고와 서비스 참여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준비서비스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4.8%에

그쳤다.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은 0.8%로 현저히 낮았다.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의향 비율은 노후준비 최우수형 집단(36.7%), 노후준비 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28.4%), 노후준비 비재무 기반 안정형 집단(26.8%), 노후준비 취약형 집단(2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향이 실제 노후준비 실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단계로 노후준비서비스의 인지도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달체계 확장, 센터 확장,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노후준비 지원 및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㉔

참고문헌

- 황남희, 이선희, 박은자, 이해정, 최경덕, 이소정, 성혜영, 김난주, 김재호, 김은지, 오신희. (2025).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93-121.
- 황남희, 박은자, 이선희, 주보혜, 오신희, 김은지, 하태욱, 성혜영. (2024).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9.
- 황남희, 유재언, 박은자, 김혜수, 양찬미, 김재호, 성혜영, 이금룡. (2019).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및 2019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85-105.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언론보도.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crapDetail.do?articleId=388&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pageIndex=1>
-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 1항.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29831>

A Cluster-Based Typology of Retirement Preparedness Profiles and Its Implications

Lee, Hyej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has now entered the stage of a super-aged society, with people aged 65 and over accounting for more than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2025. Preparing for later life is no longer solely an individual responsibility; it is also a societal undertaking that requires active government involvement. Ensuring a secure and stable later life requires early, systematic, and planned preparation. Drawing on the 2024 Survey of the Preparedness for Later Life, this article examines four dimensions of old-age preparedness—financial security, health, leisure activiti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and classifies respondents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ir preparedness profiles. The analysis explore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se groups, their responses to survey items related to the four dimensions of preparedness, their experiences with preparation support services, and their self-assessed levels of preparedness.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servic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groups, providing targeted support in areas where individuals are less prepared while helping them maintain strengths in areas where they are already well prepared.